

**정리하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혁명당 건설!**

혁명

한미 FTA 특보

발행일 : 2011년 10월 8일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3가 70번지 3층
블로그 : blog.jinbo.net/wrp

"비준무효"로 제한하지 말고 이명박 아래서 억눌렸던 모든 요구를 걸고 투쟁을 확대하자!



11월 30일, 한미 FTA 비준 무효 선언 기자회견



4차 희망버스 행진 모습. 정리하고, 비정규직 철폐 하라!!

11월 26일 집회에 2만 명, 30일에는 여의도에 5만 명이 모여서 목이 터져라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외쳤다.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광화문 사거리를 점거하고 온몸으로 물대포를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선거 심판론” 따위의 꾀수를 거부하고 의제를 확장하자!

그러나 내년 선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직접행동과 대중투쟁으로 한미FTA를 폐기시키고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려면 우리 투쟁의 요구(의제)와 방법이 지금보다 확장되어야 한다.

먼저, “비준무효 명박퇴진”만이 아니라 이명박 4년 동안 억눌려 온 우리 99%의 모든 분노와 불만을 다 들고 나와 투쟁하자. 청년 실업, 비정규직 양산, 정리해고, 물가폭등, 대학등록금, 최저임금제, 야간노동, 노동3권 불인정, 민주주의 후퇴, 재벌 프렌들리 등등. 이 문제들은 이후 한미FTA 체제 하에서 더욱 더 심화되겠지만, 이미 쌓일 대로 쌓여 폭발 직전이다. 내년 선거로 민주당 등 야권연대 세력들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대선에서 집권하면 이 문제들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정권 시절 민주당이 한미FTA를 추진한 장본인이듯, IMF 이래 정리해고제 도입과 구조조정, 비정규직화로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킨 원흉도 김대중 정권의 민주당이다. 따라서 “선거 심판론” 따위의

꾀수를 거부하고 우리 99%의 직접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준무효”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분노와 요구들이 터져 나오도록 해야 한다.

2008년 촛불시위 때 ‘의료,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으로 의제 확장 하면서 투쟁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진 사실을 상기하자. 한미FTA 단일 사안만으로는 ‘명박퇴진’ 안 되고, 선거 심판론 같은 민주당 등의 꾀수가 먹혀드는 모양이 될 뿐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도록 투쟁의 동력을 확대하고 강도를 높여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99% 직접행동 10대 요구>가 필요하다.

99% 직접행동 10대 요구

-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 6시간 노동제를 통한 실업 해소!
- △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한미FTA 폐기!
- △ 물가 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 △ 등록금 폐지, 대학 무상교육 전면 실시!
-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약법 철폐!
- △ 은행 및 금융사 국유화! 노동자통제!
-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이 요구들을 중심으로 투쟁 방법도 촛불집회를 넘어 확장해야 한다. 현재 연일 수천, 수만 명이 집회로 모여도 야권연대 국회의원들의 식상한 ‘날치기 규탄’ 연설들을 수동적으로 듣다가 해산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많이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의 오클랜드 시위대처럼 우리도 집회를 넘어 총파업을 조직하자. 투쟁사업장과 공단을 순회하며 총파업을 호소하고 선동하자.

촛불집회, 총파업투쟁과 결합하여 “명박 퇴진” 시키자!

현장활동가들이 집회에 수동적으로 참가해 ‘비준무효’만 따라 외치는 지금 같은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현장의 요구들을 걸고 조합원들을 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 간부 파업으로 총파업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집회에 나온 조합원들이 현장에 가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절실한 과제로 느끼게 해야 한다. 현장에 투쟁의 기운을 실어나르고 총파업을 지금 현장에서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투쟁이 되게 해야 한다.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실제로 가능케 하려면 촛불집회가 노동자 파업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그 동안 억눌렸던 모든 요구들을 걸고 노도와 같이 떨쳐 일어서는 대중파업으로 저 지긋지긋한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자! **혁명**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적 파산, 3자통합 정당에 어떠한 지지도 보내서는 안 된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이 아니라 아예 합당으로 가는 민노당과 노심조

민노당과 새진보통합연대(노심조)가 자본가 정치세력인 국참당과 함께 이른바 통합진보정당 결성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본가 정당과 독립하여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하겠다고 민노당을 만들었다. 하지만 민노당은 민주대연합과 반MB 야권연대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왔다. 그러더니 이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허울마저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자본가 정당과 아예 통합하는 길로 가 버렸다.

그동안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지도부 등이 추진하는 진보대통합이 민주대연합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대연합으로 가는 수순에 불과한 것임을 거듭 폭로해 왔다. 이번 국참당과 함께하는 이른바 통합진보정당도 민주대연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서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자본가세력과 연합

국참당과의 통합으로 진보대통합의 기만적인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그 동안 진보대통합을 추진해 오면서 민노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미 야권연대 이름으로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조 운동을 민주당 등 자유주의 자본가 세력의 들러리로 만들어 왔었다. 과거 분당 이전의 민노당이 노무현정권 시절 열우당 2중대 노릇으로 비판을 받아 왔었고, 분당 이후에도 최근까지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계급적 정치의식의 발전을 야권연대에 종속시켜 왔다. 작년 겨울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야5당의 중재와 타협 중용으로 무너뜨린 것이 그렇고, 올해 희망버스의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을 국회청문회, 국정조사

등 제도정치권과 의회로 몰고 가 기만적인 '국회권고안'으로 정리시키려 한 것이 또한 그렇다.

이처럼 통합 전부터 자본가 정치세력에 투항해 온 야권연대의 결과가 자본가 정치세력에 불과한 국참당과의 통합이다. 설사 이번에 국참당이 빠지고 진보정당들만의 통합이었다고 야권연대가 계속되는 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난도질당하고, 정치적 독립성이 파괴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국참당과의 통합은 이미 야권연대라는 몸 안의 암세포가 겉으로 표출된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자본가 정당과의 어떠한 연대도 노동자 정치를 굶아터지게 하고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훼손하게 된다.

자본가 정당의 꼬리로 전략한 개량주의 진보정당 운동의 파산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선대본은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야권연대/ 민주대연합의 결정판이었다. 대중투쟁뿐만 아니라 선거에서조차도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종되고 완전히 끝장나버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민주당 중심의 박원순 선대본에는 이번 국참당과 통합에 합의한 민노당과 노심조만이 아니라 진보신당도 참가했다.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는 "진보정당의 독자성은 지키되 유연한 야권연대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것은 국참당과의 통합에 합의한 민노당과 노심조의 노골적인 민주대연합만이 아니라 진보신당의 은폐된 민주대연합도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참당 같은 자본가 정당과 통합하는 노골적인 민주대연합이든, "유연한 야권연대"만 하는 은폐된 민주대연합이든 개량주의 진보정당운동은 결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안일 수 없음이 최종적으로 드러났다. 이미 10 여년에 걸친 진보정당운동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만신창이가 될 대로 됐다. 총연맹을 비롯하여 모든 노동조합들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해야 한다. 그

리고 국참당과의 통합으로 더 이상 형식적인 차원에 서조차도 노동자 정당이기를 포기한 3자통합당과도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자본가정당, 개량주의 정당과 단절하고 사회주의 혁명정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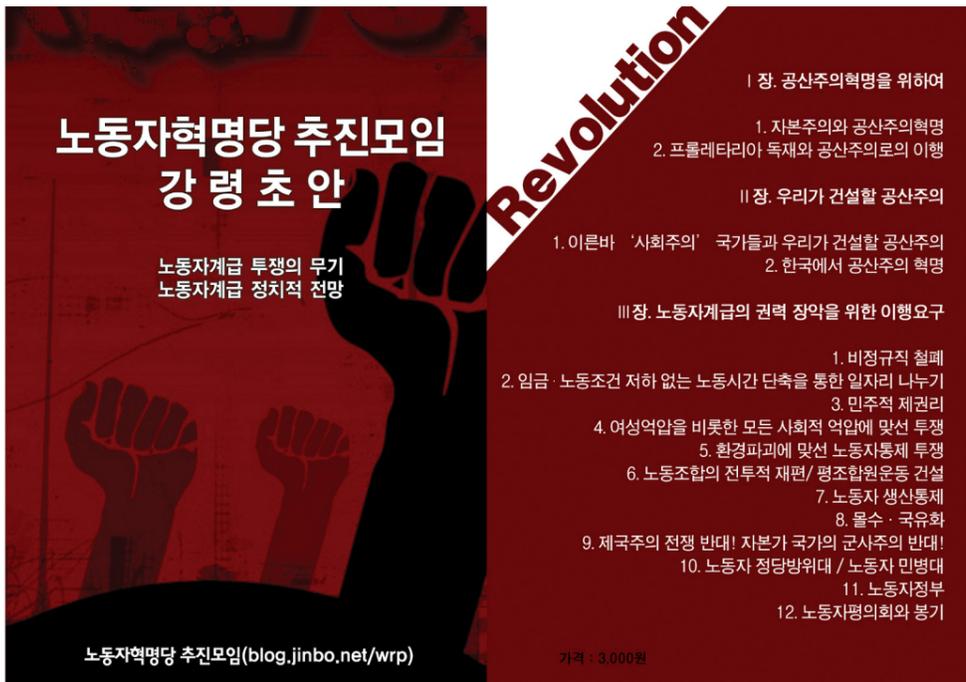
현재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 위기 정세 속에서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들만이 아니라 진보정당들, 사민주의 정당들도 집권해서는 똑같이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11월 말 며칠 사이에 똑같이 실각한 그리스와 스페인의 사민당 정부를 보라. 이들 사민주의 진보정당들은 형식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집권했음에도 민주대연합 못지않게 부르주아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집행해 왔다. 실로 이것이 모든 개량주의 진보정당의 본질적인 역할이었고, 지금까지도 그러하다.

자본가정당과 함께하는 의회주의와 개량주의로는 결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해방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자본가 정당의 꼬리로 전략시키는 야권연대/민주대연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은 야권연대에 대한 반대, 자본가 정당과 연대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회주의·개량주의와 선을 긋고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통해서만 올곧게 이루어질 수 있다. **혁명**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배신, 3자통합당 반대! FTA 체결당, 노동자 탄압당인 국참당과 함께하는 3자통합당은 자본가 정당이다!

총연맹, 노동조합은 자본가 정당에 대한 어떠한 지지도 보내서는 안된다!

의회주의 개량주의와 단절!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강령 초안

노동자계급 투쟁의 무기
노동자계급 정치적 전망

Revolution

I 장. 공산주의혁명을 위하여

1. 자본주의와 공산주의혁명
2.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주의로의 이행

II 장. 우리가 건설할 공산주의

1.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리가 건설할 공산주의
2. 한국에서 공산주의 혁명

III 장.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이행요구

1. 비정규직 철폐
2. 임금·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3. 민주적 제권리
4. 여성억압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억압에 맞선 투쟁
5. 환경파괴에 맞선 노동자통제 투쟁
6.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평조합원운동 건설
7. 노동자 생산통제
8. 물수·국유화
9.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10. 노동자 정당방위대 / 노동자 민병대
11. 노동자정부
12. 노동자평의회와 봉기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blog.jinbo.net/wrp) 가격 : 3,000원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의 강령초안을 소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구입 문의>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6348-8318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2-735-860549 오세철